

후백제 역사문화 복원 '탄력'

'후백제학회' 창립... 학술대회·시민강좌 등 펼쳐기로... 전주시, 학회 적극 지원

후백제 관련 역사와 문화를 심층 연구하고, 후백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전문 학술연구단체가 출범했다. 교수와 문화유산전문가, 박물관장, 학예사 등으로 구성된 후백제학회는 송화섭 교수(중앙대학교)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후백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학술대회와 시민강좌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펼쳐기로 뜻을 모았다.

전주를 중심으로 후백제학회가 활

동하게 된 것은 이곳이 900년부터 936년까지 37년간 후백제의 왕도(王都)로서 후삼국시대 격동의 중심지이자 찬란한 역사문화를 펼쳤던 역사가 잠든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때 후삼국 중 가장 강력한 후백제는 고려에 멸망당한 뒤 잊히고 왜곡되면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고, 학술적 성과 역시 많지 않았다. 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국립전주박물관과 전북대학교 박물관, 전주문화유산연구원 등 여러 기관에서는 후백제 관련 도성·절터·산성 등 다양한 유적을 발굴했다.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학자들도 지난 2015년부터 후백제학회의 모태가 된 '후백제연구회'를 결성, 후백제유적 답사와 강연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들은 전주를 중심으로 한 후백제에 대한 관심을 전국으로 확산시키

기 위해 기존 후백제연구회의 발전적 해체와 후백제학회 창립을 준비해왔으며 이날 마침내 창립을 공식화했다.

후백제학회의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송화섭 중앙대학교 교수는 "후백제학회는 후백제 관련 문헌자료와 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살펴, 후백제 역사와 문화의 본 모습을 밝히고 후백제학을 정립하는 것이 목표"라며 "후백제 역사문화와 학회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효철 기자



후백제 관련 역사와 문화를 심층 연구하고, 후백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전문 학술연구단체가 지난 30일 전주에서 출범했다. 이날 열린 후백제학회 창립식에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주·완주 건설기계연합회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가 토론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 방안 논의

전주·완주 건설기계연합회-전주시민교통본부, 토론회 개최

전국건설기계 전북도연합회 차운수(사)전국건설기계연합회전북도회장,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전영진 과장은 지난 30일 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전주시, 완주군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 문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회의는 '도·시 도로에 세워진 화물차, 건설장비, 덤프트럭 등은 평소 시 환경, 소음, 안전, 등 위험고 교통체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인 만큼 이제는 도, 시에서도 문제의 심각성과 주기장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의 전주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많은 대화가 진행 됐다.

최은규 사무국장은 "26일부터 30일까지 전라북도를 다니며 순회 홍보를 펼쳤다"며,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 시의 주기장 문제에 협력하여 위치확보를 하고 자연재난이나 위급 시 긴급장비들이 투입되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제공해

야 한다"고 밝혔다.

차운수 회장은 "전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사항에 따라 지역민을 위한 도, 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도, 시 길거리 반생 주차는 큰 문제로 주기장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한 길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진 시민교통본부 차량등록과 과장은 "여러 문제들이 확인되어 필요에 따른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며, "지역주민들의 도로사용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건설기계연합회에 따르면, "얼마 전 도로 위 밤샘주차 차량 주위에서 불던 아기가 안전 미확보로 인해 바퀴에 놀려 사망사고가 일어난 일이었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객사길 상생 플라마켓 개최

상권이 되살아난 전주객사길(객리단길) 도로 위에서 지역 청년들이 준비한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이날 문화행사는 크게 △플라마켓 △전시 △무용공연 △버스킹 공연 등 네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또한 10여 개의 조소작품과 트리아트 작품이 거리에 전시되고, 길거리 무용공연과 한 여름 밤의 버스킹 공연도 펼쳐져 주말을 맞아 원도심을 찾은 방문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서는 수공예품을 만드는 약 5개 상가가 직접 아끼자기한 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자리가 됐다.

이와 관련 전주객사길은 특색 있는 서양식 음식점의 외관, 음식이 그 자체로 포토존이 돼 청년층을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활성화 된 거리다.

/송효철 기자

선미촌의 변화... 서노송예술촌 '야시장'

시민강좌 '야시장 인디' 개최

최근 전주시 서노송동 선미촌에서 마을주민과 예술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야시장이 열렸다.

이날 야시장이 열린 선미촌은 아주 오랜시간동안 성매매집결지로 굳어져서 일반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웠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문화예술마을로 탈바꿈중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야시장 인디'는 마을주민과 예술가의 제안을 받아 전주시민들에게 '생태의 순환과 자원의 활용'이라는 주제를 실천하는 자리로 기획된 행사다.

야시장은 △꽃장발장 △군장 △인디 다자 △시작 △삼각 등 총 다섯 개 장르로 구성됐다.

'꽃장발장'에서는 서노송예술촌 마을주민이 직접 재배한 텃밭 작물과 원예식물이 전시·판매됐으며, 전주

에서 생산된 수공예품으로 구성된 장르인 '군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수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공예장터 판매자들에게는 담론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20~30대 청년작가들이 주도한 '인디'에서는 신진 예술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다.

특히 '꽃과 생태, 자연'을 모티브로 기획되었으며,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나누고 판매하는 아나바다 형태의 시민강좌 장르인 '야시장'에서는 전주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이야기 나누는 소통의 장이 펼쳐져 서노송예술촌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끝으로 '발장'에서는 자연재배와 유기농 등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해 만들어진 음식을 만날 수 있었다. 밥

에서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자원 순환에 동참할 수 있는 실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회용품 대신 다화용품 용기가 사용되기도 했다.

황관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마을 주민이 직접 기르고 재배한 도시텃밭과 예술가들의 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생태의 순환과 자원의 공유에 있다"면서 "이번 장르가 주민과 예술가에 의해 활기 넘치는 서노송 예술촌으로 변화하고, 전주 시민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단 '인디'는 마을문화와 공간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별 1회씩 마을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 장터는 오는 10월 운영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7-1141) 또는 이메일(mullartistlab@gmail.com)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전북경찰청, 추석명절

안전 치안 확보 '총력'

전북경찰청(청장 조용식)은 추석절을 맞아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 도민들의 따뜻하고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 경찰력을 '집중'하여 특별 치안 활동에 돌입한다.

1단계로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보안시설이 취약한 금융시설과 편의점 등을 위주로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범죄예방, 대처요령, 최근사례 등의 홍보를 진행하여, 범죄발생 다발지역과 가정폭력 재발 우려지역 등을 분석, 순찰 노선에 반영하는 등 범죄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단계는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범죄취약지역 경찰관,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등 경찰협력단체까지 집중 배치해 가시적, 다목적 순찰에 총력을 다하는 특별 치안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살인, 강도, 가정폭력 등 긴급사건에 대해 형사, 교통, 여참 등 전 기능의 역량을 집중해 대응할 예정이다.

/강석훈 기자

민·관 협력으로 성공적인 도시재생 이끈다

전주시, 선미촌준비 민관협의회 열고 하반기 사업 논의

전주시가 성매매집결지를 문화예술 마을로 바꾸는 선미촌 도시재생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여성인권활동가, 예술가, 도시재생전문가, 주민들과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댔다.

시와 전주선미촌준비민관협의회(공동위원장 조선희·신계숙)는 지난 30일 현대해상 5층 회의실에서 민관협의회 위원과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상반기 선미촌 도

시재생사업의 활동사항을 되돌아보고 하반기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상반기 선미촌준비 민관협의회 활동에 대한 보고와 집담회, 정기회, 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그간 추진해온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선진지 견학 △선미촌 걷기 △폐공가 활용방안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활동성과 사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올 하반기 추진될 시민관 합동 워크숍 △서노송예술촌 마을잔치 △도시재생사업 자문계획 △문화예술마을 조성 등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 2014년 발족한 선미촌준비민관협의회는 전주시와 함께 선미촌 문화재생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점진적 기능전환을 통한 도시재생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지속가능발전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민관 협력 성공 모델로서의 우수성과를 널리 인정받아 왔다.

조선희 선미촌준비민관협의회 민간위원장은 "선미촌 걷기, 선미촌 종사 여성 및 주민 인터뷰, 집담회, 정책발굴 등을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선미촌을 알리고, 더 많은 지역주민과 시민이 참여해 여성인권 침해공간을 여성 행복공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지난 30일 열린 선미촌준비 민관협의회.

전주시, 추석 연휴 종합대책 가동

12~15일까지 종합상황실 운영

전주시가 추석 명절 연휴기간 시민들과 귀성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특별 행정서비스를 제공기로 했다.

시는 오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운영·총괄반과 청소대책반, 교통대책반, 재해대책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또한 완산구청, 덕진구청, 전주시담은물사업본부, 전주시보건소에서도 자체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추석연휴기간 총 449명의 직원들이 연휴를 반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근무에 임하기로 했다.

종합상황실과 자체상황실에서는 시민들의 편안한 명절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과 도로, 상하수도, 청소, 가로, 보안 등의 6개 생활민원을 처리하

게 된다.

특히 시청 종합상황실 4개반은 반별 1명은 상황유지하고, 1명은 현상순찰을 통해 사건·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완산·덕진구청 생활민원 처리반은 연휴기간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찰서와 소방서, 한전, KT, 도시가스 등 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모든 시민과 귀성객이 불편함 없는 연휴를 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사건·사고 예방과 생활민원의 신속한 대처 등 종합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 야호학교 2기 프로젝트 '출발'

전주시가 2019년도 2기 야호학교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31일 야호학교 참여 청소년과 청소년들의 길잡이인 토크요사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야호학교 2기 프로젝트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가졌다.

야호학교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 시간과 주말, 방학 등을 활용해 스스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기술을 배우는 전주형 창의교육모델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는 전주시 야호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오는 12월까지 약 4개월간 자신들이 스스로 고민하며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를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함께 실제로 수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는 활동들을 펼쳐나가게 된다.

또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활동성과를 부모님과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프로젝트 발표회 시간도 마련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프로젝트에 처음 참여한 학생들에게 야호학교를 소개하

는 시간과 그 동안의 활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야호학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발대식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지난 17일에 이어 야호학교에 다시 참여하게 됐다"면서 "지난 활동 시 부족했던 점을 경험으로 삼아 더욱 주도적으로 자치 프로젝트를 운영할 계획인 만큼 앞으로의 활동이 너무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잠시나마 공부에 대한 걱정을 잊어버리고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면서 "참여한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호학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281-5324, 531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